

‘조폭 저승사자’에서 청소년 복지사로 제2의 인생 출발

“佛法으로 위기 청소년 선도하고자”



한겨울에도 눈 한번 내리지 않는 따뜻한 남쪽도시 부산.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운 찬바람이 코골을 스친다. 동장군의 매서운 기세에 놀란 은몸 가득 긴장감이 감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비단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을 가리킨다. 부산지방경찰청 본관 1층 경승실. 오늘 이곳에서 “대단한 사나이”를 만나게 될 것이다.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경승실의 문이 열렸다. 말로만 들던 조폭잡는 30년 경력의 형사 고행섭 경감은 들어오자마자 가볍게 인사한 건넌 후 좌석을 깔고 불전을 향해 예를 갖췄다. 삼배를 마친 후 그제야 활짝 웃으며 악수를 건넨다. 호랑이처럼 이글거리는 눈빛에 압도당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내 손을 잡은 그의 손이 바위처럼 뜨겁고 단단하다. 아, 진짜 형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관공서 내에 경승실이 생긴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불교수도’ 부산의 지방경찰청이며, 이를 계획하고 부처님부터 상단, 후 불탱화, 바닥 다다미까지 직접 설계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고행섭 경감이다. 그는 2002년 ‘부산경찰청장’을 장림. 2004년에는 부산지방경찰청에 경승실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20평의 추운 방안에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며 “바쁜 대인 업무와중에 외려 불심을 깊게 하고, 친선 교류를 하자는 의미로 부산경찰청장회를 만들었다”며 당시를 회

생들을 데려가 조직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발을 담그면 돌아킬 수 없는 곳이기, 조직계보를 차단하는 길은 초중고에서 탈선하는 청소년을 초기에 바로잡는 방법 뿐. 5년만 바짝 신경 쓴다면 조직폭력 집단의 인력수급에 공백이 생겨, 그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기청소년들에게 사랑과 정의, 양보와 배려, 준법정신과 사회봉사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때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불교”라며 “그러지 마!”라는 제재보다는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도방법”이었다고 덧붙였다.

조폭들의 저승사자로 26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고행섭 경감을 지탱해준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 가르침이었다. 제주도가 고향인 고경감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고, 이모님은 제주 한 사찰의 스님이었다. 12월 30일 설날그믐, 요즘처럼 폭설이 내리던, 10남매 중 아홉째인 그가 태어나던 날 눈길을 헤치고 찾아온 스님이 계셨다. 난데없는 목탁 소리에 고경감의 외할머니가 스님을 집안으로 모시고, 산모에게 줄 미역국을 공양 올리게 됐다. 그 스님은 태어난 아기의 손을 잡아준 후 한자로 이름을 적어준 뒤 자취를 감췄다. “그때 적힌 이름이 바로 ‘행섭(行燬)’인데 보통 이름에 쓰는 행복할 행(幸)자가 아닌 나아갈 행(行)자라서 다들 의아해하고, 너무 강한 이름이라고들 싫어했어요.” 그렇게 불연으로

서 ‘제 2의 인생’이 시작됐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불법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조직폭력배 집단을 와해시키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아간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입학해 2년째 보육교사 2급, 사회 복지사 2급 등 공부를 하면서 ‘진짜 알았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감싸 안아 정상상태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으면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다.

2005년 그가 고안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스쿨폴리스(학교지킴이 제도)와 ‘사람의 경찰교사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가 그것이다. 그동안의 경찰 생활에서 공부해온 것들을 잘 다듬어 위기청소년을 선도하고, 전과자의 재사회화, 학부모 교육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고경감은 “청소년에게는 충고보다 칭찬받는 법, 슬기롭게 부처님법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직폭력배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 안 되는 존재인긴 하지만 머리에 빨이 난 외계인은 아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 이웃, 친구일 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다. 불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 별명이 저승사자인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저승사자는 죽을 사람을 데리고 가지만, 재판권이 있어서 할 일이 남은 사람은 좀 있다가 데려간다고 하더라. 나도 그런 저승사자라면 좋겠다.”

실제로 그가 선도한 어느 전과자는 18년간 복역한 후 교도소에서 수계를 받고, 불교에 입문해 스님이 돼 지금까지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부처님 전에 잘못된 일들을 참회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사회의 낮은 곳, 어두운 이들을 불법으로 이끄는 고행섭 경감이야말로 우리시대 호법신장이다.

글=박지현 기자 hdbp@hanmail.net

2002년 부산지방경찰청에 최초의 관공서 경승실 창립 佛法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조직폭력배 없는 세상 발원

상했다. 이후 고경감의 주도로 매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경찰불자들에게 수계법회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고행섭 경감의 별명은 ‘저승사자’다. 언뜻, 독실한 불심으로 부산지방경찰청 내 불법 흥포에 여념이 없는데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듯 하다. 1979년 순경공채로 경찰에 첫 발을 내딛은 경감은 26년간 부산경찰청 폭력계에서 쫓겨 ‘조폭 잡는 형사’였다. 지역 조직폭력배의 계보를 훤히 꿰뚫고, 웬만한 폭력조직 두목들도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조폭 컴퓨터’라는 별명도 함께 따라다닌다. 폭력 조직간 통합 움직임과 보복폭행 등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 계보도를 활용해, 핵심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범죄와의 전쟁’으로 뜨거웠던 1992년에는 칠성파 등 부산의 4대 폭력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요즘에는 조폭들이 교문 앞에서 학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모가 계시는 ‘절 등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늘 배고팠던 시절인 연 탓에 떡과 과일을 주는 절이 마냥 좋았다고 한다. 20세가 되던 해, 최첨단 대성산 삼천봉에서 군 생활을 보낸 고경감은 졸업 시절 새벽 보초를 설 때면 두루뭉실을 잊기 위해 눈을 감으면 어디선가 아련히 목탁소리가 들렸다. 군 제대 후 고향으로 내려가 목공소에서 일도 하고, 농사도 짓던 친구의 권유로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경찰시험에 합격해 제주가 아닌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온 지 30년 세월이 흘러, 이제는 고향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부산이 제2의 고향됐다. 처음 다닌 부산불교교육대학을 바쁜 탓에 수료하지 못하고, 이후 포교사 시험 합격, 부산불교신도회 불교아카데미 1기를 수료하는 등 본격적인 신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12월 30일 은퇴로 약 30년간의 경찰생활을 마감했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선현 거사로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식사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염주천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목염주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수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향로
(대) 26 × 16 × 10cm 135,000원
- 원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
과 복판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항
이 행어쳐 나와 애벌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
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열복대는 위장기능, 의료용전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용인증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온열복대를 건강하게 하리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속들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지우함에 있어 속들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들(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열복대 “열침”이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은열지않,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